

6세기 신라 軍主의 군단과 그 역할*

최경선**

-
- I. 머리말
 - II. 광역 州停과 군주의 군단
 - III. 군주 군단의 역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6세기 신라의 지방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6세기 초에 설치된 군주를 주의 장관이면서 동시에 군사령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군주를 군사령관으로 보는 입장에서 군주의 군단과 그 역할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에 기록되어 있는 광역 州停을 군주의 군단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7세기 후반의 정토군과 동일시할 수 있다. 정토군은 출정 시마다 편성되는 임시적인 군단이었으며, 복수로 임명되는 정토군의 장군은 군주가 항상 겸직할 수 있었던 관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군주의 군단을 광역 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6세기 중엽에 四方軍主와 대응되는 4개의 광역 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군주의 군단은 광역 주정과 별개로 지방에 상시 주둔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08, 「6세기 신라의 州의 형태와 軍主의 역할」, 연세대학교)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하는 군단이었다.

군주 주재지는 幢主 주재지와 마찬가지로 중심성과 주변 성촌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군주는 당주보다 관등이 높고, 군주의 보좌관은 왕경인이었으므로 군주의 군단은 당주의 군단보다 규모도 크고 구성도 달랐을 것이다. 군단의 군관은 王京 출신자와 군주 주재지 출신의 유력자로 구성되었으며, 병졸은 왕경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가 지방 민도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지게 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5세기 후반 무렵부터 신라는 간접지배 하에 있던 주요 城·村에 조세 수취와 역역 동원을 담당하는 道使를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 영역에 비교적 고루 배치된 도사와 달리 군주는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 변방지역 중 지리적인 이점이 큰 지역에 차례로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주 휘하 군단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신라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군주의 군단이 주력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주 주재지는 전방지역으로부터 일정 정도 물러난 지역에 위치하여, 군주의 군단은 교통로를 따라 연결되는 전방의 城들을 지원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어 체계로 신라는 확보한 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며, 방어체계 상의 중요성에 따라 군주는 「창녕비」에 ‘四方軍主’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軍主, 州, 광역 州停, 「昌寧碑」, 幢主, 道使

I . 머리말

6~7세기 동안의 신라의 지방제도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 이해된다. 특히 軍主가 州의 장관으로서 군정과 민정을 겸하였다고 보

는 입장에서 그러하다.¹⁾ 561년에 세워진 「昌寧碑」를 통해서 軍主가 주의 행정장관이 아니라 군단의 사령관으로서 광역 주를 관할하지 않았음을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다.²⁾ 이와 같이 군주가 광역 주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군주가 지휘한 군단과 군주의 군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군주의 군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군주의 군사적인 역할

1) 주-군-성·촌의 군사와 행정이 일원화되었다고 보는 연구는 립건상, 1963,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2001, 『임견상전집』, 해안) ;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 李仁哲, 1989, 「新羅 中古期の 地方統治體系」, 『韓國學報』 56(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등이 있다. 성·촌에 과건된 지방관의 경우 군사보다는 행정을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주나 군 단위의 경우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 보는 연구는 今西龍, 1933, 「新羅眞興王巡狩管境碑考」,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 藤田亮策, 1953, 「新羅九州五小京考」, 『朝鮮學報』 5(1963, 『朝鮮學論考』, 藤田先生紀念事業會) ; 李成市, 1979, 「新羅六停の再檢討」, 『朝鮮學報』 92(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 李明植, 1985, 「新羅時代の 地方統治體制」, 『新羅文化』 2 ; 鄭敬淑, 1985, 「新羅時代の ‘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 48 ; 盧重國, 1987, 「法興王代の 國家體制 強化」,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慶尙北道·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 嚴成鎔, 1987, 「地方社會의 再編成」, 『統一期의 新羅社會研究』, 慶尙北道·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등이 있다. 시기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6세기 중엽부터 군정과 민정이 일원화되었다고 보는 연구로는 朱甫暎,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的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李文基, 1990, 「統一新羅期 地方官制研究」, 『國史館論叢』 20 ;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 변화와 군주(軍主)」, 『역사와 현실』 40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군정과 민정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주 단위의 군정과 민정을 군주와 (行)使大 등이 각각 담당하였다고 본 연구들이 있다.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339쪽에서는 거점으로서의 주에서는 군주에 의해 군정이, 광역 주에서는 (행)사대등에 의해 민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으며, 木村誠, 木村誠, 2004,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52~54쪽에서는 신라통일이 이전에 신라에서 주는 거점만을 의미하며, 주 내의 군정과 민정은 군주와 (행)사대등 각각에 의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았다.

2) 최경선, 2018, 「6세기 신라의 軍主와 州의 관계」, 『중원문화연구』 26.

이 크게 평가되었던 것은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에 나오는 6停을 군주가 지휘하는 군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정에 대한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군주가 광역 주를 기반으로 한 군단을 지휘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군주가 지휘한 군단의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군주의 군사 활동과 장군이 주도하는 군사 활동이나 성·촌 단위에서의 군사 활동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군주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군주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5세기 후반 무렵 신라의 지배방식이 전환되면서 성·촌단위에 도사가 파견되는 과정을 고려해 볼 것이다. 그를 통해 신라가 지방에 도사와 군주를 파견한 목적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군주가 주둔한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군주가 담당할 군사적인 역할이 신라가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6세기 신라 지방에서의 군사 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광역 州停과 군주의 군단

1. 광역 州停과 군주의 관계

「창녕비」에는 ‘比子伐停助人’이 나온다. 비자벌에는 停이 있었으며, 停의 助人이 보좌한 군 사령관이 바로 비자벌군주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561년에 비자벌에는 군주가 지휘하는 군단인 停이 있었던 것이다. 또 나머지 군주 주재지에도 甘文停·漢城停·碑利城停 등의 군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7세기 전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야성 출신의 유력자인 竹竹은 대야성도독 김품석의 幢에 속하였던 것으로 나온다.³⁾ 신라에서 幢은 역시 군단을 의미하므로 군주

3) 『三國史記』 卷47 列傳7 竹竹, “竹竹 大耶州人也 父郝熱爲撰干 善德王時爲舍知 佐大耶城都督金品釋幢下”

주재지인 대야성에 도독(군주) 직속의 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주 주재지에는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고, 軍主는 그 명칭대로 군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군주 주재지에 있었던 군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에 기록되어 있는 6停과 군주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정에는 上州, 下州, 新州 등 광역 주명을 띤 군단이 있으며, 이들 군단의 연혁이 군주 주재지의 치폐과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정군단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살피고, 6정군단을 군주 주재지의 군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잠시 6정이라는 명칭 자체를 살펴보면, 6~7세기를 통틀어서 6정이라는 군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대당·귀당·한산정·우수정·하서정·완산정 6개 군단은 군관직 구성에서 나타나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6정으로 묶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6정이라는 군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왕경을 기반으로 한 대당을 제외하고 지방의 광역 주를 단위로 한 5개 군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561년까지 지방에는 上州·下州·新州 3개의 광역 주만이 설정되어 있었다. 6정이라는 군호가 성립되었을 시기는 6세기 중반 이후이므로, 6세기 동안 6정에 포함되는 광역 주를 단위로 한 군단들을 따로 ‘광역 州停’이라고 부르겠다.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의 제군관조에는 광역 州停에 속하였던 16개의 군관직이 나온다. 군관직의 소속군단별 인원 규정, 관등 규정, 著衿 여부, 총 인원 등이 제군관조에 정리되어 있는데, 관직에 따라서 서술 순서나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광역 주정에 소속된 군관직에 대한 기록에서도 소속군단의 인원수를 나열할 때 소속군단이 나열되는 순서나 소속군단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광역 주정에 속한 군관직 기록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 군단명

4) I 유형은 大幢·貴幢·漢山停·牛首停·河西停·完山停 등 6停의 최종적인 군단이 나열된 경우이다. 이 안에서 牛首停·河西停·完山停을 나열하는 방식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II 유형에서는 한산정과 귀당의 나열 순서가 바뀌고 하서정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유형은 步兵과 관련된 군관직

을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는 특정한 경우, 歩兵과 관련되어 있거나, 군관직의 인원수가 1명 내지 2명인 경우에 한정되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광역 추정에서 소속된 군관직에 대한 기록은 적어도 3가지 계통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표 1> 6停 소속 군관직

유형	부대명 군관직명		大幢	貴幢	漢山停	完山停	河西停	牛首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I-1	將軍	4	4	3	3	2	2		진골 상신~상당	

유형	부대명 군관직명		大幢	貴幢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I-2	大官大監	5	5	4	4	4	4	4	549	
弟監		5	5	4	4	4	4	4	562	대나마~사지	
火尺 (屬大官)		15	10	10	10	10	10	10		대사 이하	

유형	부대명 군관직명		大幢	貴幢	漢山停	河西停	牛首停	完山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I-3	少監	15	15	15	13	12	13	562	대사 이하	

에서 나타난다. 또한 6정 외의 다른 군호에서도 특정 군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III 유형은 귀당 대신에 그 전신으로 기록된 상주정이 기록된 경우인데, 군관직의 인원수가 1명이나 2명 정도로 통일되어 있는 군관직에서 나타난다.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66쪽의 각주 83번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총인원·부대별 정원 규정·관등 범위 등이 일차 정리된 단일계통 사료가 주자료로 있는 가운데, 단편적인 추가자료가 더해지거나 찬자에 의해 재정리·서술 등이 이루어지면서 기술방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李文基, 1997, 앞의 책, 39~46쪽).

유형	부대명	大幢	漢山停	貴幢	牛首停	完山停	(河西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군관직명									
II-1	隊大監 (領步兵)	3	3	2	2	2	·		아찬~나마	漢山州停
	小監 (領步兵)	6	6	4	4	4	·		대사 이하	
	火尺 (領步兵)	6	6	4	4	4	·		대사 이하	

유형	부대명	大幢	漢山停	貴幢	牛首停	完山停	(河西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군관직명									
II-2	步騎幢主	6	6	4	4	4	·		사찬~나마	9誓幢 중 緋 衿 幢 누락
	步騎監	6	6	4	4	4	·		나마~사지	9誓幢 중 緋 衿 幢 누락

유형	부대명	大幢	漢山	貴幢	牛首	完山	(河西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군관직명									
II-3	黑衣長槍 末步幢主	30	28	22	20	20	·		급찬~사지	9誓幢 중 白衿, 緋 衿 누락

유형	부대명	大幢	上州停	漢山停	牛首停	河西停	完山停	설치연대	관등범위	비고
	군관직명									
III	監舍知	1	1	1	1	1	1	523	대사~사지	
	軍師幢主	1	1	1	1	1	1	524	일길찬~나마	
	大匠尺幢主	1	1	1	1	1	1		일길찬~나마	
	軍師監	2	2	2	2	2	2		나마~사지	
	大匠尺監	1	1	1	1	1	1		대나마~사지	

그렇기 때문에 광역 주정에 속한 것으로 나오는 16개의 군관직들이 특정 시기에 모두 갖춰져 있었던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설 치연대를 전하는 大官大監, 弟監, 少監 등의 5개 군관직의 경우 6세기 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7세기대에는 대감, 제감, 소감 등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7세기 중후반대에 步騎監과 步騎幢主가 활동한 사례도 찾을 수 있으므로,⁵⁾ 6세기와 7세기대 광역 주정의 상층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제한적이거나 추정해 볼 수 있다. 6세기에 16개의 군관직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역 주정은 여러 군관들과 장군으로 상층부가 구성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군단이었을 것이다.

<표 2> 『三國史記』의 군관직 사례

연도	군관직	출처(『三國史記』)
655년	大監	卷47 列傳7 金歆運
660년	大監	卷5 新羅本紀5 武烈王 7년
661년	南川大監	卷5 新羅本紀5 武烈王 8년 2월
662년	大監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672년	居烈州大監	卷43 列傳3 金庾信 下
660년	弟監	卷5 新羅本紀5 武烈王 7년
662년	貴幢弟監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684년	貴幢弟監	卷47 列傳7 驟徒
602년	少監	卷45 列傳5 貴山
668년	大幢少監, 漢山州少監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10월 12일

이러한 광역 주정의 장군직은 복수제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열·문무왕대 정토군을 편성할 때 한 군단에 여러 명의

5) 662년 당나라군에 군량을 보급하기 위해 편성된 군단에 步騎監 裂起가 포함되었으며(『三國史記』 卷47 列傳7 裂起), 684년에 보덕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군단 중 黃衿誓幢에 소속된 步騎監 金令胤의 경우도 있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金令胤). 그리고 655년에 步騎幢主 實用那의 사례도 전해진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金歆運). 6정군단에 소속된 군관직인지 불확실한 경우이거나 다른 군단에 소속된 군관직의 예이기는 하지만, 이들 군관직이 7세기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군들이 임명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표 3> 武烈·文武王代 정토군의 장군

661년 2월		661년 7월		662년 8월		668년 6월	
		大將軍	김유신			大幢 大總管	大角干 김유신
大幢將軍	伊浪 품일	大幢將軍	인문 진주 흠돌	大幢將軍	진주 (※진순 등 19장군)	大幢總管	角干 김인문 흠순 천존 문충 迺浪 진복 波珍浪 지경 大阿浪 양도 개원 흠돌
副將	迺浪 문왕 大阿浪 양도 阿浪 충상						
						京停總管	伊浪 진순 죽지
		貴幢將軍	천존 죽지 천품			貴幢總管	伊浪 품일 迺浪 문훈 大阿浪 천품
						卑列道 總管※	伊浪 인태
上州將軍	迺浪 문충	上州總管	품일 충상 의복				
副將	阿浪 진왕						

下州將軍	阿浪 의복	下州總管	진흙 중신 자간				
南川大監	무홀 옥천	南川州 總管	군관 수세 고순	南川州 總管	진흙	漢城州 行軍總管	迺浪 군관 大阿浪 도유 阿浪 용장
		首若州 總管	술실 달팔 문경			卑列城州 行軍總管	迺浪 중신 大阿浪 문경 阿浪 복세
		河西州 總管	문훈 진순			河西州 行軍總管	波珍浪 선광 阿浪 장순 순장
誓幢將軍	문품	誓幢總管	진복			誓幢總管	과찬찬 의복 아찬 천광
郎幢將軍	의광	郎幢總管	의광				
		闕衿大監	위지			闕衿幢 總管	아찬 일원 홍원

※ 668년에 이찬 인태 1인만이 지닌 ‘卑列道總管’이란 장군직은 당나라 측에서 수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667년에 당나라 고종은 유인원과 김인태에게 ‘卑列道’를 따라 신라군을 징발하여 평양에 모일 것을 명령하였다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7년 7월).

무열·문무왕대 편성된 정토군 가운데에는 上州·下州와 같은 광역 주명과 남천주(한성주)·수약주(비열성주)·하서주 등 군주 주재지명을 띤 군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주 주재지명을 띤 주명이 上州·下

州 등 광역 주명과 나란히 쓰이고 있고, 또 665년에 상주·하주를 분할하여 ‘敵良州’를 설치했음을 고려하면⁶⁾ 여기에서 군주 주재지명을 띤 주는 광역 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광역 주를 단위로 한 군단의 장군의 수는 매년 바뀌는 것으로 보아 정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여러 명이 동일 군단의 장군으로 임명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장군 휘하의 군관직으로 南川大監, 漢山州少監의 예도 보인다.⁷⁾ 이를 보면 『三國史記』 무관조의 제군관조에 나온 인원수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6정이라는 군호로 묶이는 광역 주정과 무열·문무왕대 편성된 정도군으로 나오는 군단을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런데 위의 표를 살펴보면 특정 군단의 장군직에 임명되는 인물들의 소속이 출정할 때마다 대부분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차례 장군으로 임명되었던 품일과 의복은 각각 大幢(661년 2월)→上州(661년 7월)→貴幢(668년 6월), 下州(661년 2월)→上州(661년 7월)→誓幢(668년 6월)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 평상시에 광역 주정의 장군직을 고정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정도군을 편성할 때마다 새로 각 부대의 장군직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마찬가지로 장군 예하의 군관직의 임명도 출동시마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⁰⁾ 광역 주정은 상비된 군단이 아닌 전시 출동의 상황에서 편성되는 군단이었던 것이다.¹¹⁾

6) 『三國史記』 卷34 志3 地理1 良州, “良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敵良州”

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武烈王 8년 2월 ;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10월 12일.

8) 李成市, 1979, 「新羅六停の再檢討」, 『朝鮮學報』 92 ; 1998,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76~177쪽 ; 李文基, 1997 앞의 책, 182~185쪽.

9) 井上秀雄, 1974,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45~147쪽 ; 李成市, 1998, 앞의 책, 178~179쪽; 鄭敬淑, 1985, 「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 48, 17쪽 ; 李文基, 1997, 앞의 책, 182~185쪽.

10) 李文基, 1997, 앞의 책, 197~203쪽 참고.

11) 6정의 장군직이 행군할 때 수시로 설치되는 임시적인 관직이라고 보는

다음으로 정토군의 장군직을 兵部令, 上大等, 中侍 등 중앙관이나 군주(도독)와 小京의 仕臣 등 지방관이 겸직할 것으로 나타난다.¹²⁾ 지방관이면서 장군직을 겸직할 사례는 668년 한성주행군총관에서 찾을 수 있다. 한성주행군총관으로 임명 받은 잡찬 군관은 664년 정월에 한산주도독이 되었으며,¹³⁾ 아찬 용장은 668년에 國原仕臣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¹⁴⁾ 그리고 도유는 668년과 670년 사이에 漢城(漢州)都督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⁵⁾ 한성주행군총관으로 임명된 군관과 도유 가운데 한 사람은 한산주도독에 現職으로 있으면서 행군총관을 겸했을 것이며, 국원사신인 용장도 광역 주로서의 한산주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그래서 지방군단의 장군은 동일 광역 주 내의 도독과 仕臣 등 지방관에 의해서 겸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¹⁶⁾ 그러나 661년 5월에 대야주도독으로 임명되었던 아찬 정중은 불과 2개

견해도 있다(李成市, 1998, 앞의 책, 178~181쪽). 장군직을 포함한 광역 주정의 조직 자체는 편제상 정해져 있고, 전시 출동의 상황이 되어야 규정에 따라 군단이 구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李文基, 1997, 앞의 책, 188~189쪽과 218쪽 참고).

12) 鄭敬淑, 1985, 앞의 논문, 19쪽의 표 7 참조.

13)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4년 정월.

14)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10월 25일.

용장은 6월 21일에 아찬이란 관등을 지니고 있었는데, 10월 22일 논공행상에서 '蘇判以下'의 관등을 가진 장군으로서 관등이 대아찬으로 한 등급 상승되었다. 그리고 3일 뒤에 문무왕이 옥돌역에 이르렀을 때 國原仕臣으로서 왕을 대접한 것으로 나온다.

15) 671년 문무왕의 설인귀담서 가운데 백제인들이 백제 출신 여자를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보내어 한성주를 빼앗고자 한 일이 발각되어 도유를 처벌할 사실을 전한다(『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문무왕 10년(670) 12월조에 '漢城州總管 戴世'의 일로 전해진다. 668년 9월에 고구려가 항복하고 나서 英公 이적을 따라 당나라에 들어간 신라의 입공장군 중에 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8년 9월 21일), 정작 수세는 668년 정토군의 장군으로 임명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수세와 도유는 동일 인물이거나, 둘 중 하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도유가 한주도독이었음은 『三國史記』 素那傳에서 확인된다.

16) 李成市, 1998, 앞의 책, 185~187쪽.

월 뒤에 편성된 군단의 하주장군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며, 668년 3월에 비열홀주총관이 된 파진찬 용문도 비열성주행군총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665년에 上州·下州를 분할하여 광역 주로서의 삼량주가 설정되었지만, 668년에 편성된 정토군 중에서 광역 주인 삼량주를 단위로 편성된 군단을 찾을 수 없다. 이렇듯 광역 주정의 장군직에 군주가 반드시 임명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¹⁷⁾

광역 주정은 상층부 조직을 갖추어 상비되어 있던 군단이 아니라 출정 시마다 재편성되는 임시적인 군단이었다. 그리고 광역 주정의 장군직은 중앙관과 지방관들이 겸직할 수 있었지만, 군주가 항상 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군주 주재지의 군단과 6정이라는 군호로 묶이는 광역 주정은 별개의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도출한 내용들은 7세기 중후반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세기대에 광역 주정이 운영되던 방식이 7세기대의 운영방식과 같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열·문무왕대 이전에도 광역 주정이 편성되었음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의 6정의 연혁기사를 신뢰한다면 상주정이 설치된 552년 이후로 광역 주정이 하나둘 창설되고 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년(554) 가을 7월 …(중략)… 百濟王 明穰이 加良과 함께 管山城을 쳐들어왔다.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新州軍主 金武力은 州兵을 이끌고 이르렀다.¹⁸⁾

을사년(645) 正月에 돌아와 미처 왕을 알현하지 못하였는

17) 鄭敬淑, 1985, 앞의 논문, 17~18쪽 ; 李文基, 1997, 앞의 책, 187~188쪽.

1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十五年 秋七月 …(중략)… 百濟王明穰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

데, 국경을 지키는 관리[封人]가 백제의 大軍이 와서 우리의 買利浦城을 공격한다고 급히 보고하였다. 왕은 재차 김유신에게 벼슬을 내려 上州將軍으로 삼고, 백제군을 막게 하였다.¹⁹⁾

이듬해(611) 辛未 겨울 10월에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 椴岑城을 100여 일 동안 공격하였다. 眞平王이 장수에게 명하여, 上州·下州·新州의 군사로 가잠성을 구하게 하였다. 마침내 가서 백제인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²⁰⁾

진평왕 建福 41년(624) 甲申 겨울 10월에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군사를 나누어 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冗柵 등 여섯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왕은 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 5군에 명하여 가서 구원케 하였다.²¹⁾

위의 사료들은 진흥왕대부터 진덕왕대 사이에 보이는 광역 주명을 띤 군주나 장군의 예와 광역 주명을 띤 군단의 활동이다. 이를 통해 광역 주를 단위로 한 군단의 활동이 무열·문무왕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다수의 장군들이 함께 출전하는 모습도 진흥왕대부터 살필 수 있다.

(진흥왕) 12년(551) 辛未에 왕이 居柒夫와 仇珍 大角滄, 比台 角滄, 耽知 迺滄, 非西 迺滄, 奴夫 波珍滄, 西力夫 波珍滄, 比次夫 大阿滄, 未珍夫 阿滄 등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백제인이 먼저 공격하여 평양을 깨뜨리고, 거칠부 등은 이긴 여세를 몰아 竹嶺 이외 高峴 이

19)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乙巳 正月 歸未見王 封人急報 百濟大軍來 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20)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明年辛未冬十月 百濟大發兵 來攻椴岑城 一百餘日 眞平王命將 以上州下州新州之兵救之 遂往與百濟人戰 不克引還”

21) 『三國史記』 卷47 列傳7 訥催, “眞平王建福四十一年甲申冬十月 百濟大舉來侵 分兵圍攻速含櫻岑岐岑烽岑旗懸冗柵等六城 王命上州下州貴幢法幢誓幢五軍 往救之.”

내의 10郡을 취하였다.²²⁾

진평왕 建福 19년(602) 壬戌 가을 8월에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阿莫<또는 莫>城을 포위하였다. 왕이 장군 波珍干 乾品, 武梨屈, 伊梨伐, 級干 武殷, 比梨耶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군을 막게 하였다. 貴山과 箒項도 아울러 少監으로서 나아갔다.²³⁾

建福 46년(629) 己丑 가을 8월에 왕이 伊滄 任末里, 波珍滄 龍春, 白龍, 蘇判 大因, 舒玄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娘臂城을 공격하게 하였다.²⁴⁾

[진덕왕 3년(649)] 가을 8월 백제장군 殷相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石吐 등 일곱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대장군 庾信, 장군 陳春, 竹旨, 天存 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막게 하였다.²⁵⁾

551년 죽령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침공할 때 거칠부를 비롯한 8명의 장군이 활약하였으며, 602년에는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5명의 장군이 파견되었다. 또 629년에는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기 위해 5명의 고관이 파견되었으며, 이들도 장군이었을 것이다. 649년에는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대장군 김유신을 비롯하여 복수의 장군이 출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6세기부터 대체로 장군직이 복수화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위의 기록에는 광역 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역 주정의 장군직이 복수제로 운영되었는지는 분명하

22)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十二年 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 比台角滄耽知連滄非西迺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阿滄 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 乘勝取竹嶺以外高峴 以內十郡”

23) 『三國史記』 卷45 列傳5 貴山, “眞平王建福十九年壬戌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一作莫>城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梨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貴山箒項並以少監赴焉.”

24)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建福四十六年己丑秋八月 王遣伊滄 任末里波珍滄龍春白龍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2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3년,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庾信將軍陳春竹旨天存等 出拒之.”

지 않다. 대신 6세기에 군주가 기본적으로 광역 주정을 지휘할 권한을 지녔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창녕비」를 통해 四方軍主에 대응하는 4개의 광역 주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61년 당시 동해안 방면을 모두 포괄하는 광역 주 대신 ‘우추실지하서아군’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로, 동해안 방면을 기반으로 할 광역 주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영역 중 上州·下州·新州를 기반으로 한 3개의 광역 주정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四方軍主가 각각 지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군주는 기본적으로 광역 주정을 지휘할 권한을 지니지 않았을 것이다.

15년(554) 가을 7월 …(중략)… 百濟王 明穰이 加良과 함께 管山城을 쳐들어왔다.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新州軍主 金武力은 州兵을 이끌고 이르렀다. 交戰할 때, 裨將 三年山郡 高于 都刀는 급습하여 百濟王을 죽였다. 이에 諸軍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대승을 거두었다. 佐平 四人과 士卒 29,600명을 죽이고, 말 한 마리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²⁶⁾

보통 6세기에 군주가 광역 주정을 지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위의 신주군주 김무력의 활동이 주로 거론된다. 신주군주 김무력은 州兵을 지휘하였고, 그의 군단에는 현재의 보은지역에 해당하는 三年山郡 출신의 高干 都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²⁷⁾ 따라서 김무력이 지

2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년, “十五年 秋七月 …(중략)… 百濟王明穰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 於是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2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진흥왕 15년조나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년 12월조에서 백제의 聖王을 잡아 죽인 자는 삼년산군 고간 도도(佐知村 司馬奴 苦都)로 나온다. 그런데, 김무력이 백제왕과 그 장수(재상) 네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하여(『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卷43 列傳3 金庾信 下), 이때의 일이 김무력의 공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고간

휘한 주병은 광역 주에서 징발된 병사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三國史記』 기록과 금석문 자료에서 군주 앞에는 대부분 특정 지역명이 붙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광역 주병을 지휘한 ‘新州軍主’는 특정 지역에 주둔하였던 군주가 아닌 다른 관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 김유신 열전에서 김무력과 김서현의 관직을 기록한 구절에 주목해 볼 수 있다.

㉔ 할아버지인 武力은 新州道行軍總管이 되어,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왕과 장수 4인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의 목을 베었다. 아버지인 舒玄은 관직이 蘇判 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에 이르렀다.²⁸⁾

㉕ 문무대왕이 英公과 더불어 平壤을 공파하고서 南漢州에 돌아와 군신들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백제의 明禮王이 古利山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였는데, 유신의 祖父인 武力 角干이 장수가 되어 맞서 싸웠다. 승세를 타고 그 왕과 재상 4명과 사졸들을 사로잡아 그 예봉을 꺾었다. 또 그 아버지

도도가 김무력 휘하 군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삼년산군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을 新州의 영역 내에 포함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삼년산군은 현재의 충청북도 보은지역으로 신라통일기에는 尙州에 속하였다(『三國史記』 卷34 地理1 尙州 三年郡). 통일 이후의 尙州의 管域이 소백산맥을 넘은 영동·옥천 방면에 미치는 것은 일찍부터 이 영동·옥천 방면이 신라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村上四男, 1978, 『新羅의新州設置と經營, ならびに北漢山州の置廢問題』,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31쪽). 소지마립간 8년(486)에 一善(현 경북 선산) 지역의 장정을 징발하여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다는 기사도 신라가 보은을 포함하여 영동·옥천 방면으로 진출해 간 과정을 설명해주리라고 생각한다. 삼년산군 고간 도도는 당시 전투가 일어난 관산성(옥천)과 가까웠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병력을 이끌고 동원되었을 뿐, 신주와 무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주군주 김무력이 신주에서 징발한 병력을 이끌었으며 삼년산군 고간 도도가 그의 휘하 군사였다고 해석하지만, 진흥왕 15년조 기사는 좀 더 분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28)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祖武力爲新州道行軍總管 嘗領兵獲百濟王及其將四人 斬首一萬餘級 父舒玄官至蘇判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

인 서현은 良州總管이 되어 여러 차례 백제와 싸워서 그 날 카로운 기세를 꺾고 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덕분에 변경의 백성들은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군신들은 정사를 돌보는 근심이 없었다. 지금 유신이 祖考의 業을 이어받아, 사직의 신하가 되어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그 공적이 많았다. 만일 공의 한 집안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으니 그의 職과 賞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²⁹⁾

㉞는 김유신 열전의 앞부분으로 김유신 가문의 내력이 간략하게 다뤄져 있다. 여기에서 김무력은 ‘新州道行軍總管’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김서현은 ‘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아마도 김유신의 후손인 金長淸이 行錄을 지으면서 부회한 표현일 텐데, 만일 김무력과 김서현이 동일한 군주직을 역임하였던 것이라면 왜 달리 표현하였는지 의문이다.

김서현의 관직은 통일기의 州의 장관인 도독의 명칭을 소급하여 표현된 것으로 실상은 ‘大耶(大梁)軍主’였을 것이다.³⁰⁾ 김무력의 관직명은 무열·문무왕대 정도군의 장군명과 비슷하며, 중국 隋代와 唐代 초

29)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文武大王既與英公破平壤 還到南漢州 謂群臣曰 昔者 百濟明穰王在古利山謀侵我國 庾信之祖武力角干爲將 逆擊之 乘勝俘其王及宰相四人與士卒 以折其衝 又其父舒玄爲良州總管 屢與百濟戰 挫其銳 使不得犯境 故邊民安農桑之業 君臣無宵旰之憂 今 庾信承祖考之業 爲社稷之臣 出將入相 功績茂焉 若不倚賴公之一門 國之興亡 未可知也 其於職賞 宜如何也”

30) 중국의 都督의 정식명칭은 ‘使持節都督某某州諸軍事某州刺史’로 몇 개 州의 軍務를 管督하면서 駐在州의 刺史를 兼領 혹은 帶官하였다고 한다 (柳元迪, 1990, 『唐 前期 支配機構의 變貌 研究 -武· 韋后朝의 官僚와 政治· 行政을 中心으로』,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198쪽). 김서현의 관직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은 ‘신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군이 군주로부터 위임받은 독자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使持節’이 탈락되고, 大梁州都督과 大梁州諸軍事 사이에 ‘安撫’ 두 자가 덧붙여 놓은 것은 특이하다. 사지절은 군사에 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二千石 이하의 官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濱口重國, 1966, 『秦漢隋唐史の研究 下卷』, 東京大學出版會, 852쪽 참고).

에 보이는 정토군의 군사령관인 ‘某道行軍總管’의 명칭을 빌려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³¹⁾ ㉠에서 668년 문무왕이 신하들에게 한 말에서도 김무력을 ‘將’이라고 하고, 김서현을 ‘良州總管’이라고 한 것은 ㉡의 기록과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신라본기에 나오는 ‘新州軍主’는 곧 신주장군으로 정토군의 장군직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해 김무력은 광역 주정의 장군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신주군단을 지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6세기에도 군주는 광역 주정의 장군직을 겸직하는 경우에 한해서 광역 주정을 지휘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광역 주정이 상시 편성되어 있던 군단이 아니며, 광역 주정을 군주가 지휘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6정의 연혁 중 광역 주정의 치폐 시기와 군주 주재지의 치폐 시기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먼저 6정의 연혁기사가 가진 소략함과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표 4> 6정의 연혁

6정	연혁
大幢	544년 설치.
上州停	552년 설치 - 673년 貴幢으로 고침(改爲貴幢).
漢山停	본래 新州停 - 568년 신주정을 罷하고, 南川停 설치 - 604년 남천정을 파하고, 한산정 설치.
牛首停	본래 比列忽停 - 673년 비열홀정을 파하고, 우수정을 설치.
河西停	본래 悉直停 - 658년 실직정을 파하고, 하서정을 설치.
完山停	본래 下州停 - 685년 하주정을 파하고, 완산정을 설치.

31) 隋唐代에 보이는 행군총관은 대외전쟁을 목적으로 편성된 정토군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으로, 지방의 군정장관적인 총관·도독과는 별개의 관직이었다. 唐代에 총관부가 도독부로 개칭되는 이후에도 정토군의 사령관은 여전히 ‘某道行軍總管’으로 불렸다(柳元迪, 1990, 앞의 논문, 169~170쪽; 沈起炜, 徐光烈 編著, 1992, 『中國歷代職官辭典』, 上海辭書出版社, 266쪽).

범군호조는 신라시기에 작성된 저본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오류와 소략함이 포함되어 있으며,³²⁾ 6정군단의 연혁기록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로 673년에 상주정이 귀당으로 고쳐졌다는 구절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잘못된 내용이다. 귀당은 562년 가야의 반란을 진압할 때 사다함이 貴幢裨將이었으므로³³⁾ 늦어도 562년에는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열왕 8년(661)과 문무왕 1년(661)에 편성된 정토군의 장군을 보면 귀당장군과 상주장군이 함께 나오므로, 이 무렵에 상주정과 귀당이 병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주정이 552년에 설치되었고, 673년에 귀당으로 고쳐졌다는 귀당의 연혁기사는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거나³⁴⁾ 별개로 존재하였던 귀당과 상주정 2개 군단이 673년에 통합되었던 사실을 잘못 전하는 기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³⁵⁾

두 번째로 6정의 연혁 기사를 보면 대당과 상주정을 제외하면 처음정이 설치된 시기를 전하지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산정을 제외하면 한 차례의 치폐과정만을 전하고 있어서 기록이 소략하다. 이를 6정과 군주 주재지의 군단을 동일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本○○停’의 의미는 비열홀, 실직 등에 처음 군주가 주둔하였던 시기를 가리키며, 처음 군주 주재지가 된 시기와 673년 또는 658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군주 주재지의 변천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되어 기록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하지만, ‘本○○停’은 673년, 658년 직전 혹은 이전에 있었던 군단을

32)李文基, 1997, 앞의 책, 60~62쪽.

33) 『三國史記』卷44 列傳4 斯多舍.

34) 7세기 후반대 군제개혁의 결과로 비로소 6정이 성립하였는데, 6정의 연혁을 소급정리하면서 그 이전에 병존하였던 상주정과 귀당이 계승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 기록된 것으로 파악하였다(李文基, 1997, 앞의 책, 76~80쪽).

35) 문무왕 13년에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 수비체제를 새롭게 확충하는 가운데, 상주정과 귀당을 합쳤거나, 상주정의 이름을 귀당으로 바꿈으로써 某某停과 차별화를 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末松保和, 1954, 앞의 책, 332~333쪽).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창녕비」를 통해서 561년에 上州·下州·新州 등의 광역단위가 설정되어 있었고, 동해안 방면에는 우주실지하서아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열홀주나 실직주라는 광역 주가 아직 설정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그를 기반으로 하였을 비열홀정, 실직정도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열홀정과 실직성은 561년 이후에나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광역 주정이 군주의 파견과 동시에 창설되지 않고 그 이후 어느 시기엔가 창설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한산정의 연혁 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한산정 연혁 기사에서는 두 차례의 치폐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이는 시기만 보면 북한산에서 남천으로, 남천에서 북한산으로 군주 주재지가 바뀌었음을 전하는 신라본기 기사와 일치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568년 신주정이 폐하여졌다는 6정의 연혁 기사와 달리 열전에서는 신주를 단위로 한 군단의 활동이 611년에도 보인다는 점이다.³⁶⁾ 그리고 604년에 한산정이 설치됨으로써 광역 주정의 치폐가 끝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과 달리 661년과 662년에 광역 주정의 장군은 남천주총관이었으며, 668년에는 한성주행군총관이었던 것으로 나온다. 즉 604년 이후로 한산정은 남천정으로, 그리고 다시 한성정(한산정)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신주정이 568년에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611년과 661년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도 있었다고 한다면 광역 주정은 신주정(611)-남천정(661~662)-한산정(664~668)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만, 그 시기는 잘못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⁷⁾

소략하게 기록된 6정의 연혁기사를 토대로 군주가 거점지역에 파견되었던 처음부터 광역 주정이 창설되고, 군주 주재지가 바뀔 때 따라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산주의 연혁 기사가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광역 주정의 치폐 연대와 군주 주재지의 치폐 연대가 일치하는 시기는 7세기 중후반이 된다. 그렇다면 광역 주정의 치폐 연

36)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37)李文基, 1997, 앞의 책, 80쪽.

대와 군주 주재지의 치폐 연대가 일부 일치하는 현상은, 늦어도 7세기 중반이 되면 군주 주재지의 지명에 주 단위가 부여되고 이것이 군주 주재지와 광역 주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되었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군주제와 광역 주제가 상호 결합한 이후에 군주 주재지명을 띤 주명은 동시에 광역 주명이기도 했기 때문에, 군주 주재지가 바뀌면 광역 주명도 바뀌고, 광역 주정의 명칭도 함께 바뀌었을 것이다. 6정 연혁 기사에서 광역 주정의 치폐는 실은 광역 주명이 바뀌면서 나타난 명칭의 변화일 뿐, 군주 주재지에 광역 주정이 있었고, 그것이 이동한 과정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광역 주정이 출정 시에 편성되는 군단이라면 광역 주명이 군단명으로 사용된 이유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에는 광역 주가 군주 주재지에 있던 군단의 군사관할구역(군관구) 또는 군사적 활동 범위를 의미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광역 주를 군관구로 간주하기에는 광역 주정이 출정할 때 편성되는 군단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광역 주정이 편성되어 출정하였던 지역은 해당 광역 주에 한정되지도 않았다.

을사년(645) 正月에 돌아와 미처 왕을 알현하지 못하였는데, 국경을 지키는 관리[封人]가 백제의 大軍이 와서 우리의 買利浦城을 공격한다고 급히 보고하였다. 왕은 제차 김유신에게 벼슬을 내려 上州將軍으로 삼고, 백제군을 막게 하였다. 유신은 명령을 듣고 즉시 말에 올라타고 처자를 만나지 않았다. 백제군을 반격하여 물리쳐, 2천 명을 목 베었다. 38)

선덕왕은 백제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김유신을 上州將軍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출정시켰다. 그런데 이때 김유신이 구원하러 간 買利浦城은 현재의 경남 함안군 칠서면이나 밀양시 삼랑진읍으

38)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乙巳 正月 歸未見王 封人急報 百濟大軍來 攻我買利浦城 王又拜庾信爲上州將軍 令拒之 庾信聞命卽駕 不見妻子 逆擊百濟軍走之 斬首二千級”

로 추정되고 있다.³⁹⁾ 두 가지 추정 중 무엇을 받아들이든, 下州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때리포성에 상주장군을 파견한 셈이 된다.

또 진평왕대에 椴岑城을 구하기 위해 上州·下州·新州 군단을 파견한 예⁴⁰⁾와 速含, 櫻峯 등 6성을 구하기 위해 上州·下州 군단을 비롯한 5개 군단을 출정시킨 예⁴¹⁾도 있다. 椴岑城이 전북 익산과 경북 김천 사이에 위치하였다면,⁴²⁾ 上州 영역 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上州·下州·新州 3개 군단이 한꺼번에 파견된 것이다. 그리고 속함, 앵잠 등 6성은 팔랑치 이동의 경남 함양 주변 지역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³⁾ 그렇다면 이들 성은 하주 영역 내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하주정만이 아니라 상주정을 포함한 여러 군단이 함께 파견되었다.

무열·문무왕 때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정도군이 출정하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광역 주정의 군사 활동 범위는 해당 광역 주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도군의 편성은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성·촌의 군사력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고, 타국을 정벌하기 위해 대규모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39)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 交涉와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65쪽에서는 밀양시 삼랑진읍으로 추정하였고, 鄭求福 외, 1997 『譯註 三國史記4 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658쪽에서는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부근으로 추정하였다.

40)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41) 『三國史記』 卷47 列傳7 訥催.

42)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충북 괴산지방으로 보는 견해(井上秀雄 譯註, 1980, 『三國史記』 1, 118쪽)와 경기도 안성 죽산면으로 보는 견해(金泰植, 1997, 앞의 논문, 77쪽)가 있다.

가잠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론을 금산당주로 삼았던 이유는 현재의 경북 김천에 해당하는 금산이 가잠성과 가까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가잠성은 684년 보덕성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할 때 또 보이는데, 반란 세력과 중앙에서 파견한 군단은 가잠성 근처에서 대치하였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金舍胤). 이 두 사료를 바탕으로 짐작컨대 가잠성은 경북 김천과 전북 익산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43) 速含은 신라통일기의 天嶺郡이며, 고려시기의 咸陽郡에 해당한다(『三國史記』 卷34 志3 地理1 康州).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주정의 활동 범위가 해당 광역 주를 벗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광역 주가 군관구로서의 의미가 없다면, 광역 주정이 광역 주명을 띤 이유는 해당 광역 주에서 징발한 지방민으로 편성된 군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여기에는 군주 주재지의 병력도 포함되었을 것이다.⁴⁴⁾

2. 군주 군단의 규모와 구성

지금까지 광역 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군주 주재지의 군단과 광역 주정은 별개의 조직이었으며, 군주가 광역 주정을 지휘할 권한을 지니지 않았음을 논하였다. 군주는 지방에 상시 주둔하는 군단을 지휘 하였던 것인데, 그 군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군주의 군단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군주와 당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군주가 광역 주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군주 주재지는 당주 주재지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적성비」(551)에서 勿思伐城幢主 휘하에는 邢利村 출신의 勿思伐城幢主使人이 있었다. 이를 통해 당주 주재지는 중심 성 외에 주변의 성·촌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⁴⁵⁾ 군주 주재지 또한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군주와 당주의 관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창녕비」(561)의 군주는 沙尺干(8)·及尺干(9)이고 「적성비」의 당주는 及干支(9)이다. 관등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군주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보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창녕비」에서 比子伐軍主를 보좌하는 관직으로는 比子伐停助人이 보이는데, 왕경인으로 대나마의 관등을 지녔다. 그 반면에 幢主를 보좌하는 직책은 使人으로 외위를 지닌 지방인이 맡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군주의 군단은 당주

44) 상주·하주·신주를 광역 주정이 출정할 때 광역 주 내의 성·촌 민들이 집결하는 지점과 관련된 명칭으로 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병력이 집결할 지역은 출정할 방면이 어디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 주재지와 같이 특정 지역에 항상 병력이 집결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45) 朱甫暉, 1979, 「新羅 中古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23, 23쪽.

의 군단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 구성도 달랐으리라 생각된다.

7세기 전반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642년 대야성 전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군주 휘하 군단의 구성을 살필 수 있다.

竹竹은 大耶州人이다. 아버지인 郝熱은 撰干이 되었다. 선덕왕 때에 舍知가 되어 (a)대야성도독 金品석의 幢 아래에서 그를 보좌하였다. 왕 11년(642) 임인 가을 8월에 백제장군 允忠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성을 공격하였다. 이때에 앞서 도독 品석은 (b)幕客인 舍知 黔日의 처가 미모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빼앗았다. 金일이 그 일을 한스럽게 여겨, 이때 이르러 (백제에) 내응을 하고 창고를 불태웠다. 그래서 성 안 (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굳게 (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c)품석의 보좌인 阿滄 西川<또는 沙滄 祗多那라고도 이른다.>이 성에 올라가 允忠에게 말하기를, “만일 장군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성을 들어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允忠가 말하기를, “이와 같을 것이며, 만일 그대와 우호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白日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천이 품석과 (d)여러 將士에게 성을 나갈 것을 권하였다. (e)죽죽이 그것을 말렸다. …(중략)… 품석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문을 열고 (f)士卒이 먼저 나가니 백제가 복병을 내어 그들을 몰살하였다. 품석이 나가려고 하였는데, (g)將士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죽죽이 (h)殘卒을 거두고 성문을 닫고서 스스로 방어하였다. (i)舍知 龍石이 죽죽에게 말하기를, “지금 兵勢가 이와 같으니 필시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살아서 항복하여 훗날 공격을 도모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죽죽이) 답하여, “그대의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를 竹竹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절개를) 꺾어 부러뜨릴 수는 있을지언정 굶힐 수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힘써 싸웠으나 성이 함락되어 品석과 함께

죽었다.

왕이 그것을 듣고 마음 아파하여 죽죽을 급찬으로, 용석을 대나마로 贈位하였다. 그 처자에게 상을 주고 왕도로 옮기게 하였다.⁴⁶⁾

군주 주재지인 대야성 내에는 (a) 도둑 김품석, (c) 佐 아찬 서천, (b) 幕客 사지 검일, (e) 사지 죽죽, (i) 사지 용석 등과 (d) 諸將士, (f) 士卒, (g) 將士, (h) 殘卒 등의 존재가 보인다. 도둑의 보좌관인 아찬 서천은 왕경인이며, 그가 설득하였던 여러 將士들과 백제군에게 몰살당한 將士들 가운데에는 대야성 출신 외에 왕경 출신 군관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군에 내항한 막객 검일은 대야성 출신으로 전해지며,⁴⁷⁾ 역시 대야성 출신인 사지 죽죽과 동일한 관등을 지녔던 용석도 대야성 출신이 아닌가 한다. 도둑 휘하에 있는 幢의 지휘부는 왕경에서 온 군관들과 더불어 지방 출신의 군관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幕客 黔日이나 사지 竹竹 모두 대야주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대야성 내에는 下州에 속한 다른 성·촌 출신의 군관이 나 촌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죽죽이 잔졸들을 거

46) 『三國史記』 卷47 列傳7 竹竹, “竹竹 大耶州人也 父郝熱爲撰干 善德王時爲舍知 佐大耶城都督金品釋幢下 王十一年壬寅秋八月 百濟將軍允忠領兵 來攻其城 先是 都督品釋 見幕客舍知黔日之妻有色 奪之 黔日恨之 至是爲內應 燒其倉庫 故城中兇懼 恐不能固守 品釋之佐阿滄西川<一云沙滄祇多那> 登城謂允忠曰 若將軍不殺我 願以城降 允忠曰 若如是 所不與公同好者 有如白日 西川勸品釋及諸將士欲出城 竹竹止之曰 …(중략)… 品釋不聽開門 士卒先出 百濟發伏兵 盡殺之 品釋將出 聞將士死 先殺妻子而自刎 竹竹收殘卒 閉城門自拒 舍知龍石謂竹竹曰 今兵勢如此 必不得全 不若生降以圖後效 答曰 君言當矣 而吾父名我以竹竹者 使我歲寒不凋 可折而不可屈 豈可畏死而生降乎 遂力戰 至城陷 與龍石同死 王聞之 哀傷 贈竹竹以級浪 龍石以大奈麻 賞其妻子 遷之王都”

47)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武烈王 7년, “八月二日 大置酒勞將士 王與定方及諸將 坐於堂上 坐義慈及子隆於堂下 或使義慈行酒 百濟佐平等群臣莫不嗚咽流涕 是日捕斬毛尺 毛尺本新羅人 亡入百濟 與大耶城黔日同謀陷城 故斬之 又捉黔日 數曰 汝在大耶城 與毛尺謀 引百濟之兵 燒亡倉庫 令一城乏食致敗 罪一也 逼殺品釋夫妻 罪二也 與百濟來攻本國 罪三也 以四支解 投其尸於江水”

두어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군주 주재지에는 외위를 지닌 해당 지역의 유력자들을 매개로 징발된 지방민들이 병졸로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⁴⁸⁾

긴장한 자를 골라서 모두 군대에 넣는다. 烽·戍·邏에는屯營과 部伍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⁴⁹⁾

『隋書』의 기록은 진평왕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구절은 출신지나 재산 규모에 따라 특정 계층만이 병사로 복무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⁵⁰⁾ 즉 지방민들도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졌고, 군주 주재지의 지방민들은 징발되어 군주 주재지의 병졸로 복무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군주 주재지의 병졸은 해당 지역의 유력자를 매개로 동원된 지방민으로만 구성되었을까? 진평왕대 왕경인이 일정 기간 군역에 복무하였음을 전하는 薛氏女傳을 살펴보겠다.

薛氏女는 粟里 민가의 여자이다. 비록 寒門單族이기는 하였으나, 얼굴빛이 단정하고 志行이 가지런하였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 중 아름다움을 흠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감히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진평왕 때에 그의 아버지가 연로하였는데, 차례가 되어 正谷으로 수자리를 서러 가게 되었다. 딸은 아버지가 늙고 병이 들어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었다. 또 여자여서 대신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한갓 혼자 근심하였다.

沙梁部 소년 가실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뜻을 키움을 곧게

48) 李成市, 1998, 앞의 책, 187~192쪽과 李文基, 1997, 앞의 책, 210~211쪽.

49) 『隋書』 卷80 列傳46 新羅, “選人壯健者悉入軍, 烽戍邏俱有屯管部伍” 『通典』 卷185 邊防門1 東夷 上과 『冊府元龜』 卷959 外臣部 土風의 신라 조에는 ‘屯營’으로 나와 있다.

50) 李文基, 1997, 앞의 책, 236쪽.

한 사내였다. 일찍이 설씨를 좋아하였으나 감히 말을 걸지 못하였다. 그런데 설씨가 아버지가 나이 들어 從軍해야 함을 걱정한다는 것을 듣고서 드디어 설씨에게 청하였다. “내가 비록 나약한 사내이나 일찍이 志氣를 자부하였습니다. 불초한 몸으로 嚴君의 役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중략)…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마침 나라에 일이 생겨 사람을 교대시키지 못하고 (가실은) 6년을 체류하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였다. “처음에는 3년을 기한으로 하였는데, 지금 이미 기한을 넘겼다. 마땅히 다른 집안에 시집가야겠다.” 설씨가 말하였다. “지난번에 아버지를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 굳게 가실과 약속을 하였고, 가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從軍하여 여러 해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경계가 가까워 손에서 무기를 놓지 못하는 것이, 호랑이 입에 가까워 항상 물릴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데, 신의를 저버리고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人情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⁵¹⁾

가실은 자신이 흠모한 설씨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역을 지러 갔고, 본래 3년만 지나면 군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왕경인들은 자기 차례가 되면 3년 정도의 기한 동안 군역을 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군역을 지러 간 곳은 ‘正谷’이라고 전해지나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防秋’란 변방에서 외적을 방어한다는 의미이며, 또

51) 『三國史記』 卷48 列傳8 薛氏女, “薛氏女 栗里民家女子也 雖寒門單族 而顏色端正 志行脩整 見者無不歎艷 而不敢犯 眞平王時 其父年老 番當防秋於正谷 女以父衰病 不忍遠別 又恨女身不得代行 徒自愁悶 沙梁部少年嘉實 雖貧且寡 而其養志貞男子也 嘗悅美薛氏 而不敢言 聞薛氏憂父老而從軍 遂請薛氏曰 僕雖一孺夫 而嘗以志氣自許 願以不肖之身 代嚴君之役 …(중략)… 遂辭而行 會國有故 不使人交代 淹六年未還 父謂女曰 始以三年爲期 今既踰矣 可歸于他族矣 薛氏曰 向以安親 故強與嘉實約 嘉實信之 故從軍累年 飢寒辛苦 況迫賊境 手不釋兵 如近虎口 恒恐見啣 而棄信食言 豈人情乎 終不敢從父之命 請無復言”

설씨가 가실이 있는 곳이 적과 가까운 지역임을 근심한 것을 보면 가실이 짙을 선 곳은 변방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隋書』 신라전에서 언급되는 烽·戍·邏 등의 군사시설은 국경을 비롯한 지방의 요지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며,⁵²⁾ 이러한 곳에 왕경인이 배치되어 군역을 지고, 기한을 채우면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군주 주재지에서도 군역을 부담하는 왕경인이 병졸로 복무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³⁾

그런데 군주가 지방에 파견되었던 6세기 초부터 지방민에게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부과하여 지방민을 군주 휘하의 병졸로 징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5세기 후반과 6세기 전반 사이는 신라의 지방 지배방식이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사회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503년에 세워진 「迎日 冷水里碑」(이하 「냉수비」)는 珍而麻村에 사는 節居利라는 자의 재산 문제를 신라 중앙의 共論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기에는 공론에 참여한 핵심 지배층들과 현지에 와서 일을 처리한 典事人들, 해당 지역의 村主 등의 명단도 남아 있다. 그런데 지방민인 촌주가 중앙의 핵심 지배층인 本彼部, 斯彼部の 部主들과 동일하게 ‘干支’를 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촌주가 칭한 간지를 외위 7등급의 ‘干’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⁵⁴⁾ 외위제가 왕경인과 지방민을 차별하는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촌주가 칭한 간지는 외위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⁵⁵⁾ 干(干

52) ‘邏’는 초소를 의미하기도 한다(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의 地方統治體制的 發展過程」, 『韓國古代史研究 - 韓國古代社會의 地方支配』 11, 43~44쪽).

53) 朱甫墩, 1987,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 46쪽.

54) 宣石悅,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204쪽 ; 金義滿, 1990, 「迎日冷水碑와 新羅의 官等制」, 『慶州史學』 9, 27쪽.

55)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21~222쪽.

支)이라는 칭호는 독립 小國의 首長이 사용하였던 칭호로, 이미 신라에 복속한 지방의 유력자들도 어느 정도 자치를 누리며 ‘村干’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⁵⁶⁾ 「냉수비」의 촌주 또한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지위를 신라국가로부터 인정받아 ‘干支’라는 위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국가로부터 동시에 ‘村主’라는 職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냉수비」의 촌주는 이미 독립성을 상실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⁵⁷⁾

「냉수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珍而麻村에 사는 節居利라는 자의 재산 문제가 신라 중앙의 共論을 통해 해결되던 상황이었으며, 늦어도 5세기 후반부터는 지방의 성·촌에 왕경인 출신의 지방관인 道使가 파견되었을 것이다.⁵⁸⁾ 또 『三國史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후반대에는 일정 연령대 이상의 지방민들을 동원하여 지방에 축성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렇게 신라의 지배력이 지방의 성·촌에까지 미치던 상황 속에서 최고 수장층이 지녔던 ‘干支’라는 위호의 의미는 거의 퇴색되어 버렸을 것이다.

다만, 지방의 유력자가 촌주라는 직책을 가지며, 이전에 비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외위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위제는 신라에 복속하여 간접지배 하에 있던 지방민들을 자국민으로 대우하고, 외위를 수여 받은 현지 유력자를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을 것이다.⁶⁰⁾ 외위제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라국가는 전통적인 위호를 사용한 촌주를 매개로 지방민을

56) 『三國史記』 卷45 列傳5 朴堤上.

57) 朱甫墩, 1998, 앞의 책, 140~141쪽 ; 하일식, 2006, 앞의 책, 222~223쪽.

58) 朱甫墩, 1998, 앞의 책, 62~64쪽과 78쪽.

5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년, “十一年 春 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 ; 炤知麻立干 8년, “八年(486) 春正月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60) 하일식, 2006, 앞의 책, 249~253쪽.

동원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지방민의 戶口를 직접 파악하여 역역을 징발할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더욱이 지방민에게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부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6세기 초반까지 군주의 군단은 왕경인이 주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방민이 군역을 지게 되는 시기는 법흥왕대 경위제와 더불어 외위제가 정비되어⁶¹⁾ 지방의 유력자들이 신라국가에 의해 편제되는 무렵 일 것이다. 지방민에게 외위를 수여한 목적은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위를 수여한 기준 중 하나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만한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였을 것이다.⁶²⁾ 따라서 외위를 수여했던 대상에는 그 지역의 전통적인 지배세력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배세력이 신라의 중앙지배층으로 흡수되거나 쇠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여 현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유력자들도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다.⁶³⁾ 점차 지방의 촌락사회에서 干支로서 촌주가 그나마 지닐 수 있었던 전통적인 지위 자체가 사라지고, 다수의 지방 유력자들이 외위를 받음으로써 신라국가의 지배력이 성·촌까지 미치기가 이전보다 용이해졌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왕경인과 동일하게 지방민에게도 정기적으로 군역을 부과하는 것

61) 외위제의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지증왕대설(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58쪽), 지증왕~법흥왕 초년설(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206쪽), 법흥왕 말년~진흥왕대설(村上四男, 1954, 「新羅外位小考」, 『史潮』 51, 6쪽과 井上秀雄, 1974, 「新羅官位制度の成立」, 앞의 책, 231쪽) 등이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봉평비」(503)와 「냉수비」(524)가 발견된 이후, 「냉수비」의 ‘干支’와 ‘壹今智’를 외위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503년과 524년 사이, 특히 법흥왕대에 下干支 이하 5등급의 외위가 성립되었다는 견해(朱甫墩, 1990, 「6세기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 『歷史教育論集』 13·14와 하일식, 2006, 앞의 책, 233쪽)와 503년 지증왕대에 이미 외위제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宣石悅, 1990, 앞의 논문 204쪽과 金義滿, 1990, 앞의 논문, 27쪽 등)로 크게 나뉘게 되었다.

62) 하일식, 2006, 앞의 책, 262쪽.

63) 河日植, 1991,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12·13, 42쪽.

도 가능해졌을 법하다.⁶⁴⁾

지금까지 광역 주정과 군주의 군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6정이라는 군호에 포함되는 광역 주정의 실체는 출정 시마다 편성되는 임시적인 정토군으로 군주 주재지의 군단과는 별개의 군사조직이었다. 6~7세기를 통틀어서 군주는 기본적으로 광역 주정을 지휘할 권한을 갖지 않았으며, 광역 주정의 장군직을 겸직하는 경우에 한해서 광역 주정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역 주정의 명칭은 광역 주의 명칭이 바뀔에 따라 함께 바뀌었으며, 광역 주정이 광역 주에서 징발된 병력을 기반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광역 주명을 군단의 명칭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주 휘하 군단은 지방에 상주하는 군단으로 幢主의 군단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도 크고 구성도 달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군주 아래로는 군주를 보좌하는 관직으로 助人이나 佐가 있었으며, 기타 왕경인 출신의 군관들과 지방 출신의 군관들이 상층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역을 졌던 왕경인과 지방민이 일반 병졸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군주가 파견되었던 6세기 초에는 왕경인 병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가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성·촌단위에 미치게 되고 지방민에게도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지우게 되면서 점차 지방 출신 병졸의 비율이 증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군단상을 바탕으로 6세기 초부터 각 지역에 차례로 파견되었던 군주의 역할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64) 6세기 이전에도 신라가 간접지배하던 지역에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河日植, 1991, 앞의 논문, 47쪽 참고). 이때 지방의 유력자는 해당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6세기 이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량권을 지녔을 것으로 짐작된다.

Ⅲ. 군주 군단의 역할

561년 「창녕비」를 세울 무렵까지 군주와 광역 주는 별개의 제도였다. 505년 처음 군주가 두어진 시점으로부터 이후 군주제와 광역 주가 결합하는 시기까지⁶⁵⁾ 군주의 기본적인 역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주의 역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505년 이후로 군주가 하나들 증치되어 가는 과정과 6세기 초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사이에는 금호강 이남의 낙동강 이남 지역과 낙동강 상류역인 경북 북부 내륙지역, 그리고 동해안의 강릉지역까지를 간접지배 하에 두게 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高塚이 축조되었고, 고총에는 신라 양식 토기(=이동 양식 토기)와 금동관이나 장신구, 大刀 등 금공 위세품이 부장되는 등 공통된 고고학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각 지역 집단 간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⁶⁶⁾ 신라는 한 지역 내의 세력집단 중 일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그 덕분에 그 세력은 안정된 상황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를 바탕으로 지방 유력자는 고총을 축조하였고, 고총에는 신라 중앙으로부터 받은 금동관, 귀걸이, 허리띠 장식 등 금속제 위세품과 신라 양식 토기가 부장되었다.

6세기에 군주가 주둔하였던 삼척과 강릉, 창녕, 尙州 등지에서도 비슷한 고고학적 양상들을 살필 수 있다. 강릉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라고분으로 하시동 1호 석곽묘, 병산동 8호, 초당동 7호 등이 있으며, 늦어도 4세기 후반경이면 신라의 영향력하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⁶⁷⁾ 다음 尙州지역에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상주분지에는 4세기

65) 최경선, 2018, 앞의 논문에서 7세기로 그 시기를 추정하였다.

66) 李漢祥, 1995,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3, 46~76쪽과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37~67쪽 참고.

67) 李昌鉉, 2006,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古墳資料를 中心으로」, 『文化

말에서 5세기 전반 사이에 세장방형 횡구식 석곽묘가 중심묘제로 축조되고 영남 남부지역과 유사하게 고배와 장경호 등을 중심으로 신라 토기가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하였다.⁶⁸⁾ 그리고 창녕지역에서는 4세기 말부터 고총이 축조되고 여기에도 신라 양식 토기와 위세품이 부장되었다.⁶⁹⁾

그런데 5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각 지역에서 고총이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급 고총이 거의 축조되지 않고, 추가장이 가능한 반지상식 또는 지상식의 횡구식 석실이나 횡혈식 석실로 묘제가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총을 축조하는 자들이 사회적 우위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⁷⁰⁾ 또한 부장되던 토기에서도 신라 양식 토기 내에서의 지역성이 사라지고 경주식 토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각 지역의 생산수단 혹은 조직에 대한 신라국가의 장악력이 높아진 결과로 볼

史學』 25, 75쪽.

李相洙, 2002, 「嶺東地方 古墳의 分布樣相과 그 性格」, 『(제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韓國上古史學會, 76~77쪽에서도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강릉과 삼척지역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신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李漢祥, 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嶺南考古學』 32, 37~38쪽에서는 황남대총남분 출토유물과 유사한 허리띠장식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강릉 초당동고분군이 빠르면 5세기 전반에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68) 洪志潤, 1999, 「嶺南西北部地域 初期政治體의 動向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60~62쪽과 洪志潤, 2003, 「尙州地域 5世紀 古墳의 樣相과 地域政治體의 動向」, 『嶺南考古學』 32, 88~101쪽 참고.

신라화되기 전에 이 지역의 유물양상은 소백산맥 이서의 중부지방 토광묘의 유물조합상과 유사하였다. 상주분지 이북에 있는 함창분지의 신흥리고분군도 그와 마찬가지로였으며, 상주분지와 달리 5세기 후반대가 되어서야 대부분을 중심으로 신라 토기와 신라식 장신구가 부장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洪志潤, 2003, 앞의 논문, 103쪽).

69) 李熙濬,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의 읍락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 37, 22~28쪽 참고.

70) 고총의 쇠퇴와 신라의 지방지배방식에 대해서는 李熙濬, 1998, 앞의 논문, 236~245쪽 참고.

수 있으며, 이는 신라국가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⁷¹⁾ 즉 종래에 현지의 유력자를 후원하며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에 지배력을 미치던 대신에 신라국가는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5세기 후반부터 신라가 지방에 파견한 지방관으로서 道使가 주목된다. 도사는 성·촌단위의 행정을 담당한 지방관으로 파악되며,⁷²⁾ 503년에 세워진 「냉수비」의 ‘典事人’ 집단 중에 ‘耽須道使’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부터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⁷³⁾ 「냉수비」가 세워진 지역이 경주에서 가까운 경남 포항시 냉수리(전 영일군 냉수리)이기 때문에 6세기 초에 道使가 왕경에 가까운 지역에만 파견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⁷⁴⁾ 그러나 고층의 쇠퇴 현상이 지역마다 다소간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5세기 후반 무렵이면 강릉과 삼척, 상주, 창녕 등 경주에서 먼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⁷⁵⁾ 도사는 신라가 간접지배하던 지역에 고루 파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⁷⁶⁾

71) 李熙濬, 2005, 앞의 논문, 34쪽.

72) 李鍾旭, 1974, 앞의 논문, 37~41쪽.

73) 朱甫暎, 1998, 앞의 책, 62~64쪽과 78쪽.

‘耽須’를 성·촌명이 아닌 인명으로 보면서 ‘道使’를 행정사무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직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李銖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67~73쪽). 그러나 그렇게 파악할 경우 임시적인 직명인 ‘典事人’과 ‘道使’가 의미상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朱甫暎, 2000, 『新羅 中古期 村의 性格』, 『慶北史學』 23, 214쪽). 그리고 성·촌단위에 상주하는 지방관으로 보는 편이 보다 5세기 후반 무렵의 고고학적 양상과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4) 李宇泰, 1992, 「迎日冷水里碑의 再檢討 -財의 性格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9, 107~108쪽.

75) 李相洙, 2002, 앞의 논문, 77쪽 ; 李昌鉉, 2006, 앞의 논문, 76쪽 ; 洪志潤, 2003, 앞의 논문, 94쪽 ; 李熙濬, 1998, 앞의 논문, 242~243쪽 ; 李熙濬, 2005, 앞의 논문, 30쪽과 34쪽.

76) 아직 지배조직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성·촌에 파견할 수 있는 도사의 수에는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某村道使’ 또는 ‘某城道使’는 해당 성·촌뿐만 아니라 도사가 파견되지 않은 성·촌도 村主나 村使

5세기 후반 무렵부터 성·촌의 행정을 책임졌을 도사가 신라의 전 영역에 고르게 파견된 데 비해 군주는 한 방면에 먼저 두어졌다. 505년에 처음 동해안 방면의 실직(=삼척)에 군주가 두어지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경북 북부 내륙의 사벌(=尙州)에 군주가 두어졌다. 그리고 551~552년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서 군주가 새로 증치되었고, 비사벌(=창녕) 지역에는 555년이 되어서야 군주가 두어졌다. 한강 유역을 제외한 삼척·상주·창녕 등 나머지 지역들은 신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6세기 들어서 일시에 군주가 두어지지 않았다. 만일 군주가 도사와 연계하여 지방지배를 도모하기 위해 두어졌다면, 군주는 6세기 초 신라 영역 내에 고르게 파견되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방면에 군주가 먼저 두어지고, 이후 점차 증치되어 간 것은 변방에서의 군사적인 필요성에 부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군주가 두어졌던 지역들은 신라의 영역 가운데 변방 지역이며, 또 교통의 중심지였다. 가장 먼저 군주가 파견되었던 동해안 지역은 사빈해안이나 암석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육로로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기는 불편하다.⁷⁷⁾ 오히려 해로를 활용하는 편이 편리한데, 다만 지형상의 조건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항구가 발달하기 어렵고 대부분 河口에 소규모의 항구가 발달하였다. 삼척의 경우, 강릉보다 항구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역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육로로는 영주·봉화, 정선·영월 등 영서지방과 영남 내륙지방으로 가기 수월한 지역이다. 그

人 등 지방 유력자를 매개로 관할하였을 것이다. 점차 파견되는 도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6세기 후반에는 도사가 관할하는 성·촌의 수가 1개로 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構造』, 『韓國史研究』 72, 27쪽과 朱甫墩, 1998, 앞의 책, 88~93쪽). 하지만 도사가 파견되지 않은 성·촌, 이른바 ‘자연촌’을 모두 망라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신라의 지배구조상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77) 이하 삼척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서는 徐榮一, 2003, 『斯盧國의 悉直國 併合과 東海 海上權의 掌握』, 『新羅文化』 21, 331~333쪽을 참고하였다.

리고 尙州는 경상북도 북서부지역에서 육상과 수상 교통의 요지이다. 육상 교통으로는 계림령과 추풍령으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수상 교통으로는 낙동강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연결하며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다.⁷⁸⁾ 그리고 창녕은 낙동강 하류역이나 낙동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합천 등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⁷⁹⁾ 수도를 경주에 두고 있는 신라의 입장에서 西進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위치인 것이다.

또한 군주 주재지는 대개 小國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悉直谷國(=삼척), 沙梁伐國(=尙州), 比只國(=창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6세기 초까지도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한 해당 지역의 유력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주와 왕경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단을 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소국의 중심지나 5세기에 고층을 축조하고 신라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을 받을 정도의 유력자가 존재하였던 지역들이 모두 군주 주재지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군주와 그 휘하 군단은 변방 지역에 두어졌고, 변방 지역 가운데에서도 과거 소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 정도로 지리적 이점이 큰 지역에 배치되었다. 즉 군주가 두어지는 데에는 군사적인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방 지역에서 군주와 그 휘하 군단이 6세기 이래로 신라가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⁸⁰⁾ 512년에 이사부가 하슬라군주가 되어 于山國을 복속시키고 매해 貢納을 바치게 한 일⁸¹⁾은 군주의 군사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78)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39쪽.

79) 李熙濬, 2005, 앞의 논문, 27~34쪽 참고.

80) 申滢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2~210쪽과 姜鳳龍,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95~114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과 군주의 군사 활동을 결부지어 고찰하였다.

8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년, “十三年 夏六月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 恃嶮不服 伊滄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

다. 그리고 군주 주재지의 변천 과정이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며 또한 군주 주재지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근거로, 군주 주재지는 신라의 영역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군사적 전진기지로 간주되었다.⁸²⁾ 그런데 군주의 군단이 광역 주를 기반으로 한 군단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군주의 군단을 주력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평왕) 40년(618) 北漢山州軍主 邊品은 椴岑城을 되찾을 것을 꾀하여 군대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奚論이 종군하여 적에게 나아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論은 讚德의 아들이었다.⁸³⁾

奚論은 20여 세에 아버지의 공으로 大奈麻가 되었다. 建福 35년(618) 戊寅에 왕이 해론에게 명령하여 金山幢主로 삼고 漢山州都督 邊品과 더불어 군대를 일으켜 가잠성을 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 백제가 그것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왔다. 해론 등은 맞서 싸웠다.⁸⁴⁾

618년에 해론은 金山幢主로서 군사를 이끌고 가잠성을 되찾기 위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당시 금산(=김천)에서 가까운 一善(=선산)이 군주 주재지였다. 그런데 위의 두 기록을 보았을 때 당시 전투에서 ‘一善軍主’가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금산당주 해론은 왕명에 따

子 分載戰船 抵其國海岸 誑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82) 예를 들어 동해안 방면에서의 군주 주재지는 실직(=삼척)에서 하슬라(=강릉), 실직, 비열홀(=안변)로 바뀌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동해안 방면에서의 신라의 영토 확장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지적되었다. 나머지 군주 주재지의 변천과정도 군사적 진출과정과 연관 지어 본다(姜鳳龍, 1994 앞의 논문, 96쪽과 108쪽의 표 2-2 참고).

8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0年, “四十年 北漢山州軍主邊品 謀復椴岑城 發兵與百濟戰 奚論從軍赴敵力戰 死之 論 讚德之子也”

84)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奚論年二十餘歲 以父功爲大奈麻 至建福三十五年戊寅 王命奚論 爲金山幢主 與漢山州都督邊品 興師襲椴岑城 取之 百濟聞之 舉兵來 奚論等逆之”

라 북한산군주 변품의 지휘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산당주의 군단이 일선군주에게 소속되지 않고 북한산군주의 지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주가 지위의 고하에 따라 군주의 지휘를 받기는 했지만 당주가 지휘하는 군단이 평상시 특정 군주에게 소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군주는 군주 주재지와 그 주변의 성·촌을 기반으로 군단을 편성하였지만, 그 외 지역의 군단을 결집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경우처럼 왕명에 의해서만 당주의 군단과 연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정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⁵⁾ 군주가 재량에 따라 지휘할 수 있는 군단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대외적인 군사 활동에 있어서 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군주보다는 장군들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에 보이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사이의 신라의 군사 활동을 살펴보면, 장군으로 임명된 자나 伊滄이라는 높은 관등을 소지한 자의 군사 활동이 많다. 이찬 이사부의 경우처럼 한 인물이 중심이 되어 군사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551년 고구려의 영토를 공략할 때에는 여러 장군들이 함께 출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6세기 중반 무렵이면 본격적인 정복 활동이 요청되면서 장군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⁸⁶⁾

85) 李文基, 1997, 앞의 책, 187쪽 ; 李仁哲, 1989, 「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54 ; 1993, 앞의 책, 342쪽.

7세기 후반에 白城郡 蛇山(천안)의 유력자인 素那와 그에 딸린 병력을 阿達城(강원도 이천군)으로 옮기는 일도 한주도독의 자의대로 할 수 없었으며,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李文基, 1997, 앞의 책, 169쪽과 李仁哲, 1993 앞의 책, 341쪽 참고). 이러한 사례도 군주가 군주 주재지 이외의 지역의 군대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지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86) 李文基, 1997, 앞의 책, 193쪽.

덧붙여 관산성 전투에서 신주군주 김무력보다 먼저 그 지역에 있었던 軍主角于德과 伊滄 耽知의 경우도 특정 지역에 주둔하였던 軍主가 아니라 국왕으로부터 군령권을 위임받고 출진한 將軍으로 보인다(李文基,

<표 5> 5세기 후반~6세기의 신라의 군사 활동

연도	활동 내용	군사 구성	출처(『三國史記』)
463	삼랑성을 공격한 왜인 격퇴.	伐智, 德智	권3-신라본기3
473	左右將軍로 삼음.	阿滄 伐智, 級滄 德智	권3-신라본기3
476	왜인이 동쪽 변경 침입.	將軍 德智	권3-신라본기3
486	장군으로 삼음.	伊滄 實竹	권3-신라본기3
494	고구려와 薩水の 들판에서 싸움. 犬牙城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당함.	將軍 實竹	권3-신라본기3
495	백제의 치양성을 구원.	將軍 德智	권3-신라본기3
496	고구려가 신라의 牛山城을 공격.	將軍 實竹	권3-신라본기3
500 ~ 514	가야를 취함.	沿邊官 異斯夫	권44-열전4-이사부
512	우산군 정벌.	伊滄 異斯夫(하슬라군주)	권4-신라본기4
548	백제의 독산성 구원.	將軍 朱玲, 군사 3000명	권4-신라본기4
550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현성 모두 공략. 甲士 1000명 이상을 두어 성을 지키게 함.	伊滄 異斯夫	권4-신라본기4
551	고구려의 10郡 공략.	大角滄 仇珍, 角滄 比台, 迺滄 耽知, 迺滄 非西, 波珍滄 奴夫, 波珍滄 西力夫, 大阿滄 比次夫, 阿滄 未珍夫 등 8장군, 居柒夫	권4-신라본기4 권44-열전4-거칠부
554	관산성 전투.	軍主 角干 于德, 伊滄 耽知 등, 新州軍主 金武力, 裨將 三年山郡 高干 都刀, 州兵	권4-신라본기4
562	가야 반란 진압.	伊滄 異斯夫, 貴幢裨將 斯多舍, 5000騎 이상	권4-신라본기4 권44-열전4-사다함
577	백제가 신라 서변의 州郡 침략.	伊滄 世宗	권4-신라본기4

1997, 앞의 책, 295쪽).

따라서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에 있어서 군주의 군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신 전방지역의 성·촌과 연계한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군주가 지휘한 군단의 기능에 주목하여 볼 수 있겠다.

군주 주재지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군주 주재지가 된 지역들은 전방지역으로부터 일정 정도 물러난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실직(=삼척)에 군주를 둔 6세기 초 이전에 신라는 삼척은 물론 강릉도 간접지배 하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양양에는 5세기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신라고분이 있는데,⁸⁷⁾ 이를 근거로 이르면 6세기 초에 신라가 양양지역에도 진출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를 보더라도 450년에 하슬라에 城主를 두고 있었고,⁸⁸⁾ 468년에는 하슬라인을 징발하여 泥河에 축성을 한 것⁸⁹⁾으로 보아 신라가 강릉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이 신라는 5세기대 이래로 적어도 강릉 지역까지를 이미 신라의 영향력하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삼척에 군주를 둔 셈이다.

또 서북 방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신라는 5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지방에 성을 쌓았는데, 신라 영역의 서북 지역 중 尙州 지역뿐만 아니라 소백산맥 이서의 보은, 청원 등지에도 축성을 하였다.⁹⁰⁾ 그리고 충북 괴산으로 비정되는 犬牙城 주변에서도 고구려와 충

87) 李漢祥, 2003, 앞의 논문, 37쪽.

88)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년.

중앙군을 이끌던 左軍主 仇道(『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7년)나 伊伐浪 忠萱(『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27년)이 좌천되어 지방의 城主나 鎭主가 된 예나 烽山城 城主인 直宣이 적을 물리친 공으로 一吉浪으로 관등이 상승한 예(『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5년) 등을 고려한다면 城主는 왕경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신라가 지방을 간접지배하면서 교통의 요지에 성주와 병력을 상주시키면서 지방세력의 움직임이나 교역활동을 감시 내지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全德在, 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서울대, 15~16쪽; 朱甫暎, 1998, 앞의 책, 47~48쪽).

8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년.

9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년, “十三年 築三年山城”; 慈悲麻立干 17년, “十七年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炤知麻立干 8년, “八年 春正月 拜伊浪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

돌하던 상태였다.⁹¹⁾ 6세기 이전에 이미 신라는 소백산맥 이서지역의 금강 수계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그 결과 5세기 후반에 청원 미천 리지역에 신라 양식 토기의 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⁹²⁾ 하지만 525년에 신라는 소백산맥 이동에 있는 尙州에 군주를 두었다.

이상과 같이 군주는 접경 지역보다는 다소간 물러난 지역에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⁹³⁾ 이를 바탕으로 군주의 군단이 주둔할 지역은 공격보다는 방어를 염두하고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군주 주재지 외에도 개별 성이 하나의 군사단위로서 기능하였던 것과 관련 지어 변경 지역의 방어체계를 추정해 보겠다.

素那<또는 金川이라고 한다.>는 白城郡 蛇山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沈那<또는 煌川이라고 한다.>는 힘이 남들보다 셋고, 몸이 가볍고 날랐다. 사산의 경계는 백제와 서로 엇물려서 침략하고 충돌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심나는 매번 출전하여 향하는 곳마다 무너지지 않는 진영이 없었다. 仁平(634~647) 연간에 白城郡에서 출병하여 백제의 변경 고을들을 초

城”

474년(자비마립간 17)에 축성한 성 중 一牟城은 일모산군과 동일지명으로 충북 청원군 문의면으로 비정되며, 沓達城은 沓達七郡과 같은 지명으로 경북 상주시 화서면으로 비정된다. 三年山城은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산성이며, 隄山성은 충북 옥천군 청산면으로 비정되나(井上秀雄 譯註, 1980, 앞의 책, 84쪽) 확실치 않다.

91)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16년 7월.

92) 洪志潤, 2003, 앞의 논문, 102쪽.

93) 7세기 전반에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충돌하였던 지역은 소백산맥을 사이에 낀 남원과 함양 사이였다.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또는 모산성)을 공격하고 함양에 해당하는 속함 등 6성을 함락시켰다(『三國史記』 卷47 列傳7 訥催). 이 무렵 이 방면의 군주 주재지는 대야성(=함천)이었으며, 역시 접경지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42년에 대야가 함락된 이후에 설치된 군주 주재지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함천을 마주보고 있는 창녕이나 낙동강 서안에서 경주로 들어오기 위한 길목에 위치한 대구보다는 안쪽에 위치한 경산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마찬가지로 군주 주재지가 최전방에 위치하지 않고, 접경지대로부터 어느 정도 물러나 있는 곳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락하였다. 백제는 精兵을 내어 급히 신라군을 쳤다. 우리 사졸들이 어지러이 물러날 때 심나만이 홀로 서서 칼을 뽑아 들고 노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수십여 명을 베어 죽였다. 적은 두려워하여 감히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병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백제인들은 심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신라의 飛將이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심나가 아직 살아있어서 白城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⁹⁴⁾

위의 사료는 7세기 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6세기도 지방의 성·촌에서는 지방민이 주요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신라통일기의 縣에 해당하는 蛇山 지역은 일개 성·촌에 불과했겠지만, 사산 지역의 군사력만으로도 군사 활동을 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성·촌 단위의 병력을 규합하여 郡 단위의 군사력으로 백제의 변경지역을 치기도 하였다. 三年山郡 高干 都刀나 大耶城에 있었던 舍知 竹竹·龍石과 같은 지방 유력자에 의해서 城兵이 조직·동원되고,⁹⁵⁾ 그를 바탕으로 성이 독자적인 군사 활동의 단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⁹⁶⁾

94) 『三國史記』 卷47 列傳7 素那,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其父沈那<或云煌川> 膂力過人 身輕且捷 蛇山境與百濟相錯 故互相寇擊無虛月 沈那每出戰 所向無堅陣 仁平中 白城郡出兵 往抄百濟邊邑 百濟出精兵急擊之 我士卒亂退 沈那獨立拔劍 怒目大叱 斬殺數十餘人 賊懼不敢當 遂引兵而走 百濟人指沈那曰新羅飛將 因相謂曰沈那尚生 莫近白城”

95) 李基白, 1976,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學報』 6 ; 1978,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9쪽 ; 李成市, 1998, 앞의 책, 195~201쪽 ; 李文基, 1997, 앞의 책, 212~215쪽.

城兵의 구성에 대해서는, 성의 주민은 공동체적 조직 속에서 평상시에는 농경에 동원되고,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목적에 동원되었다는 견해(이기백)와 일반주민과 구분되어 상비된 성병이 갖춰져 있었다고 보는 견해(이문기)로 나뉜다.

96) 성·촌의 군단은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의 法幢과 동일시되지만(井上秀雄, 1974, 앞의 책, 170쪽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50~51쪽 ; 李仁哲, 1988,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韓國史研究』 61·62 ;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290~291쪽), 『梁書』

그리고 개개의 성은 기본적으로 방어시설로 기능하였다. 성은 교통로를 따라 주요 길목에 축조되어 주요한 지점을 지키고, 신라를 침입해 들어온 적의 이동을 지연·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론의 아버지인 찬덕은 611년에 가잠성현령으로 있으면서⁹⁷⁾ 중앙에서 파견한 광역주정도 이기지 못한 백제군을 상대로 100여 일간 성을 지키다 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⁹⁸⁾ 가잠성은 縣令 내지 道使가 관할하는 신라의 행정체계상 말단에 해당하는 성이었다. 이러한 한 개 성이 장기간 많은 수의 군대를 상대로 농성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군주 주재지는 변경지대로부터 일정 정도 물러난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서, 변경지역에 교통로를 따라 배치된 성들과 긴밀히 연결되었을 것이다. 이들 성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 농성하는 동안, 예비대로서 군주 주재지의 군단을 파견하여 적에게 반격을 가하는 방어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⁹⁹⁾ 이러한 방어체계는 많지 않은 군사력으로도 개별성들이 효과적으로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신라는 변방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주의 군단을, 전방 지역의 성·촌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여 방어체계를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료 상으로는 변경에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중앙에서 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을 파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군주가 대응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大耶軍主’였던 김서현이 백제와 여러 차례 싸워 예봉을 꺾었고, 그 덕분에 백성이 농사지으며 살 수 있었다는

신라전의 52邑勒에 대한 기록을 법당과 관련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朱甫噉, 1998, 앞의 책, 86~87쪽).

97) 경기도 하남시의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중에 戊辰名 목간에는 ‘須城道使’가 나온다. 이 목간은 보통 608년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朱甫噉, 1991, 「二聖山城 出土의 木簡과 道使」, 『慶北史學』 14 ; 2002, 앞의 책, 298~306쪽 ; 李道學, 1993, 「二聖山城 出土 木簡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12, 191~193쪽). 도사라는 명칭이 7세기까지 사용되었다면 가잠성현령은 실제로는 가잠성도사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98) 『三國史記』 卷47 列傳7 奚論.

99) 조영식, 2006, 「3세기 로마의 제국방어 군사전략」, 『서양사연구』 35, 16~19쪽 참고.

문무왕의 말¹⁰⁰⁾을 통해서 위와 같은 방어체계가 실제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군주 휘하 군단의 역할에 있어서 공격보다는 방어가 보다 중요시되었다면, 군주 주재지가 영역 확장 과정에 따라 바뀌는 것도 정복이 완료된 이후 확보된 영역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군주 휘하 군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군주는 성촌 단위의 행정을 위해 신라 영역에 고르게 파견된 도사와 달리 제한된 지역에 차례로 파견되었다. 군주 주재지는 과거 소국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지리적 이점이 큰 곳이었으며, 신라 영토 내에서 최전선이 아니라 전방 지역에서 일정 정도 물러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주의 군단은 광역 주정과는 별개로 광역 주정보다는 규모가 작고 중심 성과 주변 성·촌을 기반으로 한 당주의 군단보다는 컸을 것이다. 따라서 군주의 군단은 신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력군으로 활약했다기보다는 변방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보하기 위해 전방 지역의 성·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561년에 군주의 군단은 네 방면의 변경 지역에 있는 군사적 요지에 주둔하였으며, 신라의 방어체계 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창녕비」에 「四方軍主」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561년에 세워진 「昌寧碑」를 통해서 軍主가 주의 행정장관이 아니라 군단의 사령관으로서 광역 주를 관할하지 않았다는 이전 논문을 바탕으로 군주의 군단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00)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김유신 열전에서 김서현의 관직은 ‘大梁州都督安撫大梁州諸軍事’ 또는 ‘良州總管’으로 기록되어 있다.

『三國史記』 직관지 무관조에 기록되어 있는 광역 州停을 군주의 군단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는 7세기 후반의 정토군과 동일시할 수 있다. 정토군은 출정 시마다 편성되는 임시적인 군단이었으며, 복수로 임명되었던 정토군의 장군은 군주가 항상 겸직할 수 있었던 관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군주의 군단을 광역 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6세기 중엽에도 四方軍主와 대응되는 4개의 광역 주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군주의 군단과 광역 주정은 별개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주의 군단은 지방에 상주하는 군단으로서 중심 성과 주변 성·촌을 기반으로 한 幢主의 군단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군주의 관등이 당주의 관등보다 좀 더 높고, 군주의 보좌관이 경위를 지닌 왕경인임을 고려하면, 군주의 군단은 당주의 군단보다 규모도 크고, 그 구성도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단의 군관은 王京 출신자와 군주 주재지 출신의 유력자로 구성되었으며, 병졸은 초기에 왕경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가 지방민도 왕경인과 동일하게 군역을 지게 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주 군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5세기 후반 무렵부터 신라는 간접지배하에 있던 주요 城·村에 조세 수취와 역역 동원을 담당하는 道使를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 영역에 비교적 고루 배치된 도사와 달리 군주는 군사적인 필요성에 따라 변방 지역 중 지리적인 이점이 큰 지역에 먼저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주 휘하 군단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신라의 영역 확장 과정에서 군주의 군단이 주력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주 주재지는 전방 지역으로부터 일정 정도 물러난 지역에 위치하여, 군주의 군단은 교통로를 따라 연결되는 전방의 城들을 지원하여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어체제로 신라는 확보한 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며, 그러한 중요성에 따라 군주는 「창녕비」에 「四方軍主」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투고일: 2019.10.20, 심사개시일: 2019.10.22 게재확정일: 2019.11.30]

【參考文獻】

- 姜鳳龍, 1994,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金潤坤, 1985, 「麗代의 按察使制度 成立과 그 背景」, 『嶠南史學』 1 ; 2001, 『한국 중세의 역사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 金在弘, 1991,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構造」, 『韓國史研究』 72.
-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 交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金賢淑, 1997,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의 地方統治體制的 發展過程」, 『韓國古代史研究 - 韓國古代社會의 地方支配』 11.
- 金義滿, 1990, 「迎日 冷水碑와 新羅의 官等制」, 『慶州史學』 9.
- 박종진, 2003,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 『東方學志』 122.
- 邊太燮, 1968, 「高麗 按察使考」, 『歷史學報』 40(1971, 『高麗政治制度史 研究』, 一潮閣).
- 서영일, 1999,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徐榮一, 2003, 「斯盧國의 悉直國 併合과 東海 海上權의 掌握」, 『新羅文化』 21.
- 宣石悅, 1990,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 『韓國古代史研究』 3.
- 申滢植, 1984,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 柳元迪, 1990, 『唐 前期 支配機構의 變貌 研究 - 武·韋后朝의 官僚와 政治·行政을 中心으로』,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基白, 1976, 「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學報』 6 ; 1978,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 李道學, 1993, 「二聖山城 出土 木簡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12.
- 李文基, 1982,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 20·21.
- 李文基, 1997,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 李相洙, 2002, 「嶺東地方 古墳의 分布樣相과 그 性格」, 『(제28회) 한국

- 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韓國上古史學會.
- 李銖勳, 1988, 「新羅 中古期 州의 構造와 性格」, 『釜大史學』 12.
- 李銖勳, 1995, 『新羅 中古期 村落支配 研究』, 釜山大 博士學位論文.
- 李宇泰, 1992, 「迎日冷水里碑의 再檢討 -財의 性格을 中心으로」, 『新羅 文化』 9.
- 이인재, 1993, 「高麗末 按廉使와 都觀察黜陟使」, 『역사연구』 2, 역사학 연구소.
- 李仁哲, 1988,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韓國史研究』 61·62 ;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 李仁哲, 1989 「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 『韓國學報』 54 ; 1993,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 李鍾旭, 1974,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 學報』 64.
- 李昌鉉, 2006,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古墳資料를 中心으로」, 『文化 史學』 25.
- 李漢祥, 1995,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裝身具 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33.
- 李漢祥, 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嶺南考 古學』 32.
-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李熙濬,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의 음락 구성과 동향」, 『嶺 南考古學』 37.
- 全德在, 1990, 「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 『韓國史論』 22, 서울대.
- 전덕재, 2001, 「신라 중고기 주(州)의 성격 변화와 군주(軍主)」, 『역사 와 현실』 40.
- 鄭敬淑, 1985, 「新羅時代의 ‘將軍’의 成立과 變遷」, 『韓國史研究』 48.
- 조영식, 2006, 「3세기 로마의 제국방어 군사전략」, 『서양사연구』 35.
- 朱甫暎, 1979, 「新羅 中古 地方統治組織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23.

- 朱甫墩, 1987,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
- 朱甫墩, 1990, 「6세기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 『歷史教育論集』 13·14.
- 朱甫墩, 1991, 「二聖山城 出土의 木簡과 道使」, 『慶北史學』 14 ; 2002, 「二聖山城 出土의 木簡과 道使」,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朱甫墩,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朱甫墩, 2000, 「新羅 中古期 村의 性格」, 『慶北史學』 23.
- 최경선, 2018, 「6세기 신라의 軍主와 廣域 州의 關係」, 『중원문화연구』 26
- 河日植, 1991,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 『學林』 12·13.
-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 洪志潤, 1999, 「嶺南西北部地域 初期政治體의 動向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洪志潤, 2003, 「尙州地域 5世紀 古墳의 樣相과 地域政治體의 動向」, 『嶺南考古學』 32.
-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木村誠, 1976, 「新羅郡縣制의 確立過程と村主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3 ; 2004, 『古代朝鮮의 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의 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 武田幸男, 1980,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의 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 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 濱口重國, 1966, 『秦漢隋唐史의 研究 下卷』, 東京大學出版會.
- 李成市, 1979, 「新羅六停의 再檢討」, 『朝鮮學報』 92 ; 1998, 『古代東アジア의 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井上秀雄, 1957·1958, 「新羅軍制考」上·下, 『朝鮮學報』 11·12 ; 1974, 「新羅兵制考」,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 井上秀雄, 1974, 「新羅官位制度의 成立」,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 村上四男, 1954, 「新羅外位小考」, 『史潮』 51.

村上四男, 1978, 「新羅の新州設置と經營, ならびに北漢山州の置廢問題」,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坂元義種, 1969, 「五世紀の日本と朝鮮 -中國南朝の冊封と關聯して」, 『史林』 52-5 ;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Abstract】

Kunju(軍主)'s Army and its Function in 6th Century of Silla

Choi, Kyung-sun

It is estimated that from the 6th to 7th century, Kunju(軍主), known as the governor of Chu(州), the district of the highest level, was recognized as a government post showing the military characteristic most clearly. However, based on Ch'angnyongbi(昌寧碑 : The monument was erected at Ch'angnyong in 561), it was shown that in the mid-6th century, Kunju and Broad-area Chu were operated as separate system. Based on this, it was intended to review the army of Kunju and to understand the military operation system in Silla.

First, I examined whether the broad-area Chujung(州停) could be regarded as Kunju's army. The broad-area Chujung can be identified with the Expeditionary Force. The Expeditionary Force was a temporary army organized at per war and the admiral of the Expeditionary Force was not the additional post that Kunju could always get. Also, in the 6th century, the four broad-area Chus corresponding to Sabangkunju(四方軍主) weren't established, so it can be concluded that Kunju's army and broad-area Chujung were separate.

Kunju's army was a permanent presence in the provinces. Kunju's army, like Tanju(幢主)'s, would have been based on central castles and surrounding fortresses and villages(城·村). Considering

Kunju's rank and subordinate, it is believed that Kunju's army were larger and had a different composition than Tangju's army. The military officers consisted of the people from the capital and potentates from Kunju's post. The soldiers of the army consisted mainly of the people from the capital at first, however, the number of local people came to grow after they were imposed on the same military services as the people from capital.

Toward the end of the 5th century, Silla may have begun to operate direct-control by dispatching Tosa(道使). Unlike Tosas, who were spread to throughout the dominions of Silla comparably, Kunjus seem to be stationed at the places that were on the border and had the most geographical benefits according to military needs. The post of Kunju located somewhat distant from the front line so that the army of Kunju could have supported the outpost fortresses connected along routes and counterattacked the enemies. Through such defense system, Silla must have tried to secure the conquered area.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defense system Kunju would have been recorded as 'Sabangkunju(四方軍主)' in Ch'angnyongbi.

Keywords: Kunju(軍主), Chu(州), Broad-area Chujung(廣域 州停), Ch'angnyongbi(昌寧碑), Tangju(幢主), Tosa(道使)